

해남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속도...정부 예산 반영

450억원 투입 3만4000㎡ 규모 조성...2024년 용역·2028년 완공 태양광 기자재 재처리...R&D·실증 시설, 시험·인증센터 등 들어서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추진되는 '탄소중립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2024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환경부 주도로 탄소중립(녹색융합) 클러스터가 3만4000㎡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탄소중립 집적단지는 총사업비 450억원이 들어간다.



'탄소중립 집적단지' 구상도.

이곳에서는 태양광 발전 이후 기자재(패널)의 재처리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과 실증화 등을 진행한다. 개발된 연구기술을 바탕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연구부터 유통까지 모든 지원을 펼친다. 집적단지에는 연구개발(R&D) 시설과 실증 시설, 시험·인증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시설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2024년 기본구상계획 용역에 들어간다. 준공 목표 시점은 오는 2028년이다.

탄소중립 집적단지는 태양광 발전 보급 추세에 따른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다. 오는 2029년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전국에서 6796t의 사용 후 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 집적단지가 조성되면 태양광 발전 이후



해남군이 '탄소중립 집적단지(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하는 모습.

〈해남군 제공〉

기자를 재활용하며 2050 탄소중립을 앞당길 것으로 해남군 측은 내다봤다. 해남군은 민선 8기 들어 탄소중립 집적단지 조성을 현안으로 선정해 추진해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잇달아 찾아 국비 확보를 건의했다. 2년에 걸쳐 기본계

획구상 용역과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추진한 끝에 이번 성과를 이뤄냈다. 해남군은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 21곳을 대상으로 참여 의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명현관 군수는 "대통령 전남 공약인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의 하나로 추진해온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이 이번 정부 예산안 통과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며 성과를 보인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탄소중립 일 번지 해남을 향한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 군내버스 내달부터 전면 무료 운행...전남 처음

8개 업체 35대 68개 노선 운송원가 지원 年 8억원 책정



완도군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군내버스(사진) 전면 무료 운행 정책을 시행한다. 완도군은 30일 신우철 군수 공약사항인 '군내버스 무료 운행'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 승차와도 차별화된 정책이다. 완도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군내버스는 8개 업체 35대로, 6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인구 4만6000여 명 대비 65세 이상이 35%를

차지하는 만큼 군내버스는 자가운전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해 왔다. 이를 무료 운행으로 전환하면서 버스 이용객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 기사들도 몸이 불편한 고령 승객들에게 요

금을 받는 수고로움을 덜어 시간 단축과 안전 운행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군내버스에서는 당장 요금통이 사라진다. 완도군은 무료 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또 군내버스 운송원가 지원을 위해 연간 8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게 돼 기쁘다"며 "무료 버스 운행이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ng@

진도군, 전복 소비 촉진 총력전...온라인·직거래 장터 등 판매

추석맞이 특가할인 이벤트도

군은 두 차례의 직거래장터에 이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진도아리랑몰에서 진도전복 팔아주기 행사를 진행해 6t(1억 5000만원 이상)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직거래 장터를 방문해 진도전복을 직접 맛본 고객들은 진도전복의 훌륭한 식감에 반해 진도아리랑몰을 통한 재구매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던 어가에 힘을 실어줬다. 또 군은 한가위 추석을 맞아 진도 수산물과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소비 촉진 캠페인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진도아리랑몰에서는 '추석맞이 진도아리랑몰 특

가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 행사는 오는 9월 4~21일까지 18일간 진행되며, 진도아리랑몰 200여 개 전품목을 20% 할인된 금액(1인 5만 원 한도)으로 판매(22일 택배마감)할 예정이다. 동시에 9월 19~21일까지 경기 용인시 보정동과 20~24일까지는 오산시청 앞에서 자매결연 도시 대상 직거래장터에 참여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진도 농수산물에 많은 관심 바라고 진도 농수산물과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신안 압해읍에 '음악 벽화마을' 만든다

어반컴플렉스와 조성 업무협약



박우량(왼쪽) 신안군수가 장원철 어반컴플렉스 대표와 '뮤직 그래피티 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압해읍에 그래피티(벽화) 마을을 조성한다. 신안군은 그래피티 작가망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예술·전시 단체 어반컴플렉스와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맺었다. '음악'을 소재로 한 벽화 마을은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압해읍사무소 일원에 조성된다. 신안군은 어반컴플렉스 측에 벽화 제작비와 작가 체류비 등을 지원한다. 중앙정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한편, 우선 군비 일부를 투입해 오는 10월께 벽화 그리기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벽화가 그려지는 곳은 공공건물과 동의를 얻은 주민 주거지 담벼락 등이다. 지역 특색을 담아 벽화마을을 조성하고 주민 호응도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어반컴플렉스(어반브레이크 운영위원회)는 아시아 최대 도심 길거리 문화 축제인 '어반브레이크'를 주최하고 있다. 방대한 그래피티 작가망을 기반으로 도시 곳곳을 디지털 예술 놀이터로 탈바꿈하고 있다. 신안군은 이번 협약으로 압해읍에 벽화마을을 조성해 섬 문화 증진과 지역개발, 도시재생 효과를 노린다. 신안 압해도와 천사대교로 이어지는 압태도에

있는 '동백 파마머리 벽화'는 명소로 자리잡기도 했다. 압태면 기동리 삼거리의 문병일·손석심 부부 집 담벼락에 그려진 이 벽화는 신안 여행자들이 인증 사진을 남기는 장소 중의 하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 세계에서 높은 디자인 실력과 예술성을 인정받는 아티스트와 인적 관계망을 지닌 어반컴플렉스와 협업을 하게 됐다"며 "문화 소외 지역에 혜택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해 청년 유입과 인구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목포과학대, SM원홀딩스와 신재생에너지 인재양성 협약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전남도 서부권에 이와 관련한 인력양성 협약이 체결됐다. 목포과학대학교(총장 이호균)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인재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SM원홀딩스 그룹(회장 이용걸)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목포과학대학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현장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전기과 명칭을 '신재생에너지전기과'로 바꾸고 교과 과정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SM원홀딩스는 신재생에너지 전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기업으로 풍력과 태양광발전소 등 3개 단지 약 140MW와 태양광발전소 ESS 74MWh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맞춤형 인재배출이 가능해 신재생에너지 제조·조립·운송·설치·운영·유지관리 분야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과학대는 2023학년도 2학기 개강과 2024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은 "신재생 에너지산업 인재양성과 우리지역 인재채용을 확대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암군이 도시 개선사업에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최근 상호읍 사무소에서 열린 '2030 영암군관리계획 재정비·상호읍당 경관개선사업 주민설명회'. (영암군 제공)

영암군 주민 참여로 도시디자인 새로 꾸민다

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설명회

2030 영암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영암군이 도시 개선에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영암군은 최근 상호읍과 영암읍에서 '2030 영암군 관리계획 재정비안'과 '도시디자인 주민참여사업 설명회'를 각각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암군은 지역 곳곳에서 주민설명회를 잇달아 열어 도시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 지난 25일에는 영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군청 앞 광장·군민의 강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영암군은 영암읍에 오는 2026년까지 광장과 도심 속을 흐르는 '군민의 강'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한 뒤 지난 3

월에 이어 두 번째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군청 앞 광장은 영암 주민들에게 휴식과 소통, 화합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7500㎡ 부지에 지하 주차공간 170면을 갖춘다. 군민의 강은 288m 길이로 도심을 흐른다. 이날 설명회에는 광장 조성 편입구역 토지·건물 소유자와 임차인, 영암읍민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장조성 기본계획(안)을 듣고, 질문하고 의견을 냈다. 기존 상가 철거에 따른 대체 용지 확보와 '광장·군민의 강 조성 추진단' 구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상가 철거 보상금과 보상 시점을 바람직하게 정하고, 대체 용지를 확보하고 상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지난 29일 영광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회의의장협의회 252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강필구(오른쪽 세번째) 전남도시군회의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있다. (영광군의회 제공)

영광서 전국 기초단체 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시상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들이 영광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전남도시군회의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영광군의회 의장)은 지난 29일 영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회의의장협의회 252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시도 대표회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도 시군의회 의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이 열렸고, 개회사, 환영사, 축사 등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김한균 영광군의회 부의장 등 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역 의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회의에서는 파크골프장 활성화 촉구 건의문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한 안건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강필구 전남도시군회의의장협의회 회장은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왔으나 아직은 아쉬움이 크다"며 "지방의회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